

반도체난 풀리나...국내 완성차 5개사 7월 판매량 ↑

해외 판매 전년동월비 8.9% 늘어 5개월만 증가세 전환 내수 기아·쌍용차 ↑, 현대차·한국GM·르노코리아는 ↓

지난 7월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국내·해외 판매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여간 지속돼 온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어느 정도 해소 기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5

사가 최근 발표한 지난달 실적 종합한 결과 내수와 수출을 합한 글로벌 판매(반조립 제품 수출 포함)는 66만5천27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판매는 12만2천134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 줄었지만, 물량이 훨씬 많은 해외 판매가 54만3천136대로 8.9% 늘었다.

월별 판매 실적이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만이다. 특히 5개사 모두 해외 판매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판매 실적에서 플러스 성적을 받아들이었다. 다만 내수 판매의 경우 기아와 쌍용차가 증가했지만, 현대차와 한국GM, 르노코리아차는 감소해 회비가 잇달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아직 반도체 공급난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5개 사의 7월 판매 실적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체별 실적을 보면 현대차는 국내 5

만6천305대, 해외 26만9천694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32만5천999대를 팔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5.9% 감소하고 해외 판매는 6.3% 증가했다. 합계로는 4.0% 늘었다. 기아는 국내 5만1천355대, 해외 20만6천548대 등 총 25만7천903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국내는 6.6%, 해외는 6.2% 늘어난 것으로 합산 글로벌 판매량은 6.3% 증가했다. 한국GM은 5만3천943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15.5% 늘었다. 내수는 4천117대로 전년 동월보다 1

5.7% 줄었지만, 수출은 4만9천826대(반조립 제품 포함)로 19.1% 늘어났다. 르노코리아차는 지난해 1만6천673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1% 판매량이 늘었다.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14.1% 줄어든 4천257대였지만, 수출 판매량은 '효자 모델'인 XM3(수출명 르노 뉴 아르카나)의 인기로 힘입어 104.4% 증가한 1만2천416대로 집계됐다.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는 쌍용차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토레스 출시에 따른 판매량 증가로 지난해 7월보다 31.8% 많은 1만752대를

판매했다.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7.9% 늘어난 6천100대, 수출은 85.9% 증가한 4천652대를 각각 기록했다. 쌍용차의 월 판매량이 1만대를 돌파한 것은 2020년 12월(1만591대) 이후 1년7개월만이다. 내수 시장의 차종별 판매량을 보면 상위권은 모두 현대차와 기아가 차지했다. 1위는 8천986대가 팔린 현대차 포터였고 이어 기아 쏠렌토(6천940대), 현대차 그랜저(6천777대), 기아 봉고III(6천407대), 기아 카니발(4천901대)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현대차 월드랠리팀, 'WRC 핀란드 랠리' 우승
현대자동차가 지난 4~7일(현지시간) 핀란드에서 열린 '2022 월드랠리 챔피언십' 8번째 라운드 핀란드 랠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은 현대팀 드라이버 오트 타넡(오른쪽) 선수와 코드라이버 마틴 아르베오야 선수(왼쪽)가 우승을 확정 짓고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 <현대차 제공>

금호타이어 '레드닷 어워드' 수상

UAM용 시스템 타이어 '에어본' 디자인 콘셉트 부문 본상

금호타이어는 '에어본 타이어(Airborne Tire)' 제품으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2 (Red Dot Design Award 2022)'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레드닷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1955년부터 디자인 콘셉트, 제품,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디자인을 평가하는 시상식으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국내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개발 업체들은 2025년 UAM 출시, 2030년 정식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UAM인 도심형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100% 전기

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UAM의 구현을 앞두고 자기 부상 열차 시스템에 착안해 자기장을 이용한 UAM 시스템 타이어를 기획했다. 이번 수상 제품인 UAM용 시스템 타이어 '에어본'은 자기장 서스펜션 및 회전 휠 장치를 통해 별도의 휠모터 없이 전기만으로 스스로 바퀴를 회전시켜 항공기를 움직일 수 있고 항공기가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자기장의 힘만을 이용해 타이어 바퀴가 공중에 떠 있게 된다. 고무 부품과 에어리스 부품이 혼합된 구성으로 수직 이착륙에 부드러운 착륙이 가능하도록 해 승객들이 느낄 수 있는 큰 충격을 감소시켰다. 조만시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은 "미래형 타이어인 에어본 제품에서 금호타이어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며 "기술명가 금호타이어라는 명칭에 걸맞게 에어본을 바탕으로 미래형 제품 및 기술 연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기아, '레이 EV' 활용 PBV 아이디어 공모전

10월16일까지...수상작에 최대 1천만원 상금

기아가 레이 EV를 활용한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8일 기아에 따르면 아이디어는 오는 10월16일까지 기아 공식 홈페이지(www.kia.com)에서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새로운 맞춤형 PBV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참여 목적과 대상에 따라 ▲비즈니스(차량을 사용해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사업자) ▲라이

프스타일(일상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차량을 쓰는 일반인) ▲커스터마이징(특장 비즈니스 운영 업체)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커스터마이징 부문은 영상, 입체 도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레이 EV를 개조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 된다. 기아는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꾸려 독창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따져 10월31일 수상작을 최종 선발한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수상자에게 100만~1천만원의 상금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및 커스터마이징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면 상금뿐 아니라 사업비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고객 아이디어가 직접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PBV 생태계를 고객과 함께 만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핵심 미래사업인 PBV로 정했으며 올해 파생형 PBV인 레이 1인승 밴과 니로 플러스 택시를 출시했다. 2025년에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적용한 전용 PBV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기수회기자

기아 EV6 '스웨덴 전기차 톱10' 진입

출시 1년도 안돼 성과...니로EV는 1위 수성

기아가 친환경차의 대표시장인 스웨덴에서 EV6, 니로EV 등 전기차들 내세워 선전하고 있다. 특히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는 현지에서 출시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전체 판매량 '톱10'에 오르고 기아의 인기를 이끌고 있다. 8일 스웨덴 자동차산업협회의 자동차 판매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스웨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4.2%포인트(p) 상승한 27.4%로 집계됐다. 판매된 자동차 10대 중 3대가 전기차였던 셈이다. 스웨덴은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함께 유럽에서 전기차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EV6는 이러한 스웨덴 시장에서 지난해 10월 현지 진출 후 처음으로 전 차종(내연기관차 포함) 월간 판매 순위 10위권에 들었다. 기아 전기차의 선전은 EV6에 앞서 스웨덴에 진출한 니로EV가 주도하고 있다. 니로 EV는 올해 1~7월 스웨덴 시장에서 총 4천508대가 팔리며 폭스바겐 ID.4(4천375대), 테슬라 모델Y(4천216대), 폴스타 2(2천416대), 볼보 XC40 EV(2천267대)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순위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EV6도 누적 판매량 2천39대로 6위를 기록 중이다.



니로 EV와 EV6의 선전에 기아는 스웨덴 전기차 시장 판매 순위에서도 꾸준히 선두권을 지키고 있다. 기아는 올해 스웨덴 전기차 시장에서 3월(2위)과 6월(3위), 7월(3위)을 제외하고는 1위에 올랐다. 기아 관계자는 "스웨덴은 규모가 아주 큰 시장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전동화 전환이 빨라 세계 전기차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시장"이라며 "EV6와 신형 니로 EV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